

【 해외금융뉴스: 일본 】

니혼생명, 업계 최초로 ‘멘탈휴업특약’ 신설한 취업불능보장보험 출시

□ 일본 최대의 생명보험회사인 니혼생명(日本生命)은 ‘멘탈휴업특약’을 추가한 ‘취업불능보장보험’을 일본 생보업계 최초로 다음달 시판할 예정임.

- 취업불능보장보험은 상해나 질병, 임신, 출산 등의 사유로 장기간 일하지 못하는 사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, 기업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니혼생명이 기업에 보험금을 지불하는 구조의 기업단체보험 상품임.
- 니혼생명이 출시하는 이번 신상품은 기존 취업불능보장보험에 멘탈휴업특약 추가 시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에 걸린 사원이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만 있으면 휴업기간동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.
- 아울러 보험금의 수취한도 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고 10만엔의 사망급부금을 없애는 등, 작년 한해 판매건수 52,307건을 넘어 100~1,000억엔으로 추산되는 취업불능보장보험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니혼생명은 기대하고 있음.

□ 업계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향후 취업불능보험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- 경기악화로 기업들의 정리해고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업무량 증가에 따라 사원들의 정신건강 악화를 우려하는 기업들의 취업불능보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
- 이번 신상품 출시에 대해 업계는 실적악화와 보험사간 경쟁심화 등의 영향으로 신시장 개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니혼생명이 발전 잠재력이 큰 취업불능보장보험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자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.

(니혼생명 홈페이지, J-CAST 뉴스 3/9)